

IB 중·고교 프로그램 핵심 CORE 과정 운영 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2025 국제 바칼로레아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일 전북도립미술관 강당에서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3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IB 프로그램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DP)의 핵심인 CORE 과정(TOK, EE, CAS)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PYP-MYP-DP 간의 계열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DP CORE 과정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세부적으로는 IB DP CORE 과정은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TOK(Theory of Knowledge, 지식이론), 학생들이 개별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EE(Extended Essay, 소논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CAS(Creativity·Activity·Service, 창의·활동·봉사) 등이다.

강사로는 고원상 대구서부고 교사(IB 월드스쿨 코디네이터)가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DP CORE 과정의 철학과 운영 사례를 나눴다.

특히 CORE 과정의 수업과 평가 소개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실천력을 함양하는 실제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며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IB 프로그램이 전북 수업 혁신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0일 전북도립미술관 강당에서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3차 특강'이 열린 가운데, 고원상 대구서부고 교사(IB월드스쿨 코디네이터)가 강연을 하고 있다.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이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큰 상'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 수업혁신 이해영·정민수

교육혁신 양종갑, 교육협력 부문에 완주군·순창군 수상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는 진형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과 전운태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 강동화 의원을 비롯한 내빈 및 수상자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초대 수상자로는 △수업혁신 부문에 이해영·정민수 수석교사 △교육혁신

부문에 양종갑

1600' 개발 등 문해력 지도의 달인으로

정민수 수석교사는 교육포털 '수업도시락 엔터링'을 개발 및 운영하고,

교육혁신 부문 대상을 받은 양종갑

교육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한 완주군과 순창군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이종민(전북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1,000쪽이 넘는 심사자료를 보며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결과적으로 각 부문을 대표할 최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진형식 교육위원장은 "전북 교육발전대상 시상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가치를 교육공동체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전북교육발전대상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 교육발전대상이 훌륭한 인물을 더 많이 발굴하고, 표상으로 삼는 의미있는 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장기간 사용 가능하면서도 고성능·저잡음 구현

전북대 이한열 교수팀, 심전도 패치 개발 '화제'

전북대학교 이한열 교수팀(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JBNU-KIST 산학연융합과)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고성능·저잡음을 구현한 심전도(ECG) 패치를 개발해 화제다.

지난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교수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주)바이오프로테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자가치유 특성과 전자기파 차폐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고성능 심전도 ECG 패치를 구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IF 13.0, 분야 상위 7.9%)에 게재됐다.

최근 의료기기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체의 생체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센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ECG 센서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핵심 기술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센서는 부차적 저하, 접착 잔여물, 수분

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핵심 기술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센서는 부차적 저하, 접착 잔여물, 수분

안정성, 그리고 전자기 간섭(EMI)에 의한 신호 왜곡 등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하이드로겔 기반의 전도성 전극층과 차폐층이 통합된 ECG 패치를 개발한 것. 이 패치는 피부에 뛰어난 밀착성과 자가치유 기능을 갖추고, 고습 환경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아 장시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EMI 차폐층은 저차원 물질인 MXene이 함유된 하이드로겔로 구성돼 기존 대비 약 2배 향상된 차폐 효율을 보였다. 개발 센서는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심전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신호 대 잡음비(SNR) 역시 기존 대비 9배 이상 향상돼 실시간 정밀 측정 능력을 크게 높였다.

이한열 교수는 "EMI 간섭, 수분 민감도, 전도성 저하 등 생체신호 센서의 기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며 "향후 무선 전송 시스템과 통합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소재글로벌엔지니어링사업) 및 KRISS의 연구자료를 받아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태국 우돈타니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육 협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8~20일 태국 우돈타니 지역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돈파차이리파타야 중등학교 및 우돈타니 직업학교와 각각 한국어교육과 유학생 진학 연계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는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운영 중인 우돈파차이리파타야 중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진학 상담, 문화교류, 비전한국어센터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재학 중인 직업학교 UPDTS와는 한국어 및 직무교육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실효성 높이고... 부담 낮추고...

전북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역 센터들과 협력... 23~27일 평일 5일간 보수교육 실시

전북대학교 아동학과(학과장 김태연)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이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처음 보육교사에 대한 주중 교육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보수교육사업단은 지역 센터들과 협력해 대체교사 우선 지원 체계를 갖추고, 23~27일 평일 5일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교육 중 유일하게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의 부담이 큰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교육생 1인당 2만 원을 직접 지원해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의 지역 접근성 확대를 위한 남부지역 교사들을 위한 추가교육도 계속된다. 전북대 아동학과가 위탁 운영 중인 남원 육아종합지

원센터의 교육 공간을 활용해 인근의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등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보육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론과 실무 전문지식을 갖춘 전북대 아동학과 전임교수와 외부 전문가들이 고르게 교육에 참여해 단순히 이수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효성 있는 역량 향상 교육으로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김태연 보수교육사업단장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은 결국 지역 보육환경의 질적 제고로 이어진다"며 "전북대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전북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아동학과 홈페이지(<https://child.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7월 1일자... 승진 142명·전보 355명 등 총 65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20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142명(4급 2명, 6급 70명, 7급 69명, 8급 1명), 전보 355명(5급 36명, 6급 102명, 7급 141명, 8급 67명, 9급 9명) 등 총 658명이다.

먼저 지역 대학과의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조정임 사무관(참모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군산대로 파견 발령하고, 김종현 서기관(정책기획과 정책성과담당)은 전북대로 파견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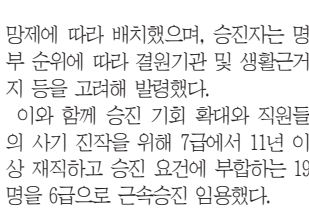
정책성과담당으로는 정은이 사무관(문예체단건강과 급식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진로·진학 프로그램, RISE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 국립대(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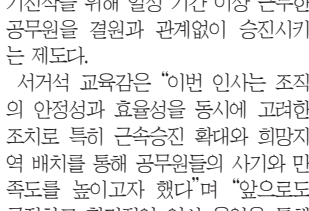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



조정임



김종현



정은이

망제에 따라 배치했으며, 승진자는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이와 함께 승진 기회 확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 요건에 부합하는 19명을 6급으로 급속승진 임용했다.

급속승진 제도는 장기 재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특히 급속승진 확대와 희망직역 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전문직원 40명 선발

유치원 교사 8명 등 최종 합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 합격자 40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8명, 초등교사 1명,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3명 등이다.

앞서 4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총 3단계의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1차로 현장실무능력·전북교육정책·정책기획능력을 평가했고, 2차로는 공개검증·직무수행계획서 평가·자기소개서 및 교육활동 실적평가·교직원 면담·인성 및 동료교직원 다면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 3차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의토론으로 구분해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종 선발된 교육전문직원은 유·초·중등 일반분야 및 전문분야, 유치원임기제분야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돼 학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7일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체육관에서 '제14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우석대학교와 전북맹아학교, 대한안마사회회 전북지부, 충주성모학교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시력 등급에 따라 B1, B2, B3, B4(납땜 단식)로 나뉘며, 예선전(리그전)과 준결승(토너먼트),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